

HEADLINE NEWS

시립묘지 재개발 사업 추진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市는 시립묘지인 Mountain View Cemetery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887년 조성된 이 묘지에는 약 92,000기(基)의 분묘와 145,000개의 납골공간이 있지만, 1986년 이후 만장(滿場)된 상태이다. 市는 1996년부터 이 묘지의 재활용 가능성을 검토해오다가 2000년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고 올해 재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이 재개발 사업은 市 권역 내에 장묘시설을 제공하고, 점차 증가하는 화장·납골수요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시립묘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市는 기존의 묘지·유적들을 보존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새로운 잠재용지 발굴, 다양한 납골형태 개발, 효율적인 토지 이용 등을 통해 추가공간을 공급하고, 조경·역사유적을 정비함으로써 도시공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오랜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되었으며, 市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다.

(www.city.vancouver.bc.ca/commssvcs/mountainview.htm)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민관합동으로 녹지 확대 추진 (동경)
- ② '인공안개' 만드는 삼림공원 조성 (중국 : 杭州)

도시환경

- ③ 수도권 7개 지자체로 「폐기물제로협의회」 구성 (동경)
- ④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환경세」 부과 추진 (방콕)

도시교통

- ⑤ 보행자 전용교량으로 도심과 江南 연결 (런던)
- ⑥ 자전거 전용도로 네트워크화 추진 (파리)
- ⑦ 버스를 「움직이는 갤러리」로 운영 (일본 : 土庄町)

행재정

- ⑧ 외국관광객을 2배로 늘리기 위한 관광진흥계획 추진 (동경)
- ⑨ 신기술분야 외국인 전문가 대규모 채용 계획 (북경)
- ⑩ 첨단기술 육성을 위한 「신경제발전전략」 채택 (시카고)

사회복지

- ⑪ PC 없는 영세민에게 인터넷상으로 「가상컴퓨터」 제공 (휴스턴)
- ⑫ 밤 늦게까지 운영하는 「인증보육원」 설치 확대 (동경)
- ⑬ 양로원을 「公設民營」 방식으로 도심부에 설치 (동경)

① 민관합동으로 녹지 확대 추진 (동경)

東京都는 환경보전효과가 큰 녹화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녹지계획추진위원회」를 구성, 지난 7월 3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사본부를 비롯, 도시계획국, 환경국, 산업노동국, 건설국, 항만국, 수도국, 교육청 등 8개국 11개부의 장(長)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위원회에는 교육청도 참가해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연학습용 학생농원 설치를 추진하게 된다.

都는 도시녹화를 위해 내년부터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5년마다 '녹지율(지역 중 녹지나 하천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체크해 이를 기초로 계획을 수정·보완함으로써 녹화추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都는 그 동안 시가지개발로 인해 녹지가 점차 줄어들어 1998년 녹지율이 63%를 기록해 25년간 4% 정도 녹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都는 지난 4월부터 옥상녹화를 촉진하는 조례를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민간건설업체는 독자적으로 옥상녹화시스템의 판매에 힘써왔다.

(日本經濟新聞, 8. 23) (www.koho.metro.tokyo.jp)

② '인공안개' 만드는 삼림공원 조성 (중국 : 杭州)

중국 浙江省 杭州市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인공적으로 안개를 분무하는 이른바 「안개 속의 삼림공원」을 최근 조성했다. 市는 龍井公園 내의 삼림에 '인공안개'를 만드는 스프레이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실제 안개가 낀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 공원은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깨끗한 물을 원료로 해 만든 무색·무취한 안개의 신선함이나 신비한 분위기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이나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인공안개에는 음이온이 주택지역의 수천 배인 10만~50만개가 들어 있어, 시민들에게 쾌적함을 제공해주고 있다. (차이나넷, 8. 30)

③ 수도권 7개 지자체로 「폐기물제로협의회」 구성 (동경)

일본 정부의 도시재생본부가 추진하는 ‘폐기물제로형 도시 재구축’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와 7개 都縣市(東京·카나가와(神奈川)·사이타마(埼玉)·치바(千葉)의 1都 3縣과 요코하마(横浜)·치바(千葉)·카와사키(川崎)의 3정령(政令) 지정도시)로 구성된 「폐기물제로협의회」가 지난 7월 25일 발족되었다. 위원회는 앞으로 내년 봄을 목표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폐기물발생 억제나 리사이클 확대를 통한 수도권 폐기물의 감량화 목표 설정 및 관련시설 정비를 검토할 계획이다. (본지 제29호 「도시재생 프로젝트 공동 추진 위해 7개 都縣市로 ‘수도권재생회의’ 구성 (동경)」 기사 참조)

협의회는 앞으로 폐기물·리사이클 관련시설을 동경만 임해부에 집중 설치하고,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수로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東京都는 임해부의 중앙방파제매립처분지와 成南島 매립지를 대상으로 폴리염화비닐 폐기물의 무해화 시설 및 톱밥발전시설 등을 정비하는 ‘수도권 슈퍼에코타운 구상’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의 1都 3縣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1998년 현재 8,500만톤으로, 일본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매립처분량은 10%인 850만톤이며, 이 중 약 30%가 수도권 밖에서 처분되고 있다. (日本經濟新聞, 7. 26)

④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환경세」 부과 추진 (방콕)

태국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체에 대해 「환경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태국 재무부는 지난 4월부터 「환경세」 부과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으며, 18개월 안으로 조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세」 부과대상에는 오존층 파괴에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 사용업체와 헤어 스프레이 등 개인 화학용품 제조업체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당국은 시행초기에는 「환경세」를 낮게 책정하고, 경제가 회복단계에 들어서면 세금을 점차 높여 나갈 계획이며, 환경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환경정화기금으로 전용(專用)할 방침이다. 태국은 지난 92년에도 「환경세」 도입을 검토했으나, 관련 기업체의 반발이 거세 도입하지 못했다.

(국제환경동향, 6. 26, 대한상공회의소 권)

5 보행자 전용교량으로 도심과 江南 연결 (런던)

런던 메트로폴리탄 정부는 도심인 런던자치시의 금융 및 경제중심지구와 문화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江南, 즉 템스강 이남 지역의뱅크사이드(Bankside) 지구간을 주민들이 걸어서 왕래할 수 있도록 보행자 전용교량을 새롭게 설치할 방침이라고 지난 8월 10일 발표했다. 당국은 지붕과 전망대도 갖추게 될 이 보행교량이 설치되면 주민들의 보행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템스강을 건너거나 템스강에 접근하기가 용이해 런던 메트로폴리탄 정부가 구상하는 ‘공간 개발’과 ‘교통 전략’의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경제 및 금융중심지구와 신흥문화지구를 연결함으로써 경제와 문화간의 상호작용도 촉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개통 3일만에 폐쇄되었던 기존의 보행 교인 ‘밀레니엄 브리지(사진 참조)’도 올 연말 재개통될 전망이다. ‘밀레니엄 브리지’는 템스강 북쪽의 런던자치시에 있는 세인트 폴 사원과 남쪽의 뱅크사이드 지구에 새로 조성된 Tate Gallery of Modern Art 간에 설치된 길이 320m, 폭 3m의



밀레니엄 브리지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다리이다. 지난해 6월 10일 개통된 이 다리는 개통 3일만에 연인원 15만 명이 통과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했지만, 다리의 흔들림으로 인해 현기증을 호소하는 시민이 속출하는 바람에 당국은 3일만에 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www.london.gov.uk/news/2001/366-1008.htm)

6 자전거 전용도로 네트워크 추진 (파리)

프랑스 파리는 휴일에만 자동차의 출입을 통제하던 자전거 전용도로 중 세느강변 구간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일 개방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재 163km에 달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운영하고 있는 파리는 매월 첫째 일요일을 '자전거, 보행자, 롤러스케이팅의 날'로 정하고,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버스전용도로의 폭을 넓히는 등 그 동안 자전거 이용을 장려해왔다.

또한 지난 6월에는 드니 보팽 부시장이 자전거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자전거 주차시설을 도시가로시설에 포함시키고, '지역계획'을 개정해 건물 및 시설 내에 자전거 주차공간을 만들도록 하는 한편,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시행되는 3개년 계획을 통해 각 코뮌(Commune)과 광장 등을 연결하는 자전거 전용도로 네트워크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ww.mairie-paris.fr/parisweb/fr/hotel/conferences/mandature_actuelle/com28062001.htm)

7 버스를 「움직이는 갤러리」로 운영 (일본 : 土庄町)

일본 도노쇼(土庄)정의 쇼도시마 버스는 운행중인 직행버스 내에 탁아소 및 보육원의 아동들이 그린 그림을 최근 게시하기 시작했다. 「움직이는 갤러리」로 불리는 이 그림 전시는 관내 11개 탁아소 및 유치원의 협력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동물이나 가족 그림이 전시되고 있으며, 앞으로 초등학생들의 그림도 게시될 예정이다.

(www.fcci.or.jp/ftrf/pub-trp/trantpc.htm)

8] **외국관광객을 2배로 늘리기 위한 「관광진흥계획」 추진 (동경)**

東京都 산업노동국은 東京을 찾는 외국관광객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지난 8월 31일 「관광산업진흥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계획안은 파리, 뉴욕, 런던, 싱가포르 등 관광선진도시에 비해 취약한 東京의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것으로, 관광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향후 5년간 東京을 방문하는 외국관광객 수를 현재의 277만명에서 600만명으로 2배 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안이 제시한 주요시책은 첫째, 東京의 매력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대규모 이벤트 개최 등 적극적인 시티세일즈 전개, 둘째, 도시정비와 관광자원 개발을 연계하고 자연환경·산업·역사·스포츠 등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자원 및 루트 개발, 셋째, 교통인프라·관광안내·자원봉사 및 서비스체계 정비 등이다. 특히, 계획안에는 극장 영업시간이나 대중교통기관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카지노시설을 확대하며, 생태관광(Ecotourism) 루트를 개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都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금년 하반기쯤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www.sangyo-rodo.metro.tokyo.jp/kankou/index.htm) (아사히신문, 9. 3)

9] **신기술분야 외국인 전문가 대규모 채용 계획 (북경)**

중국 北京市는 향후 5년간 정보통신, 생명과학, 신약, 신소재, 환경보호, 자원의 종합적 이용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약 5,000명의 외국인 전문가를 초빙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市는 이를 위해 외국의 고급인력 채용과 관련된 시책을 제정·정비해 급여와 대우를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市는 과학기술 관련업체의 외국 선진기술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시장가치가 높은 신기술의 발전과 응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人民日報, 8. 17)

⑧ 첨단기술 육성을 위한 ‘신경제발전전략’ 채택 (시카고)

미국 시카고市는 향후 지속적으로 탄탄한 경제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신경제 도시발전전략(New Economy Growth Strategy)’을 채택했다. 이는 지식, 정보 및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구조 아래에서 시카고가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수준을 높이며, 경제기반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市는 이 전략 수립을 위해 최근 경쟁도시와의 비교연구를 수행해, 시카고의 경제여건에 대한 현황, 동향, 문제점 및 잠재력에 대한 분석평가를 수행했다.

발전전략은 기업·대학·연구기관 및 정치권간의 연계를 통한 첨단의학·소프트웨어 개발·무선소프트웨어(Wireless software)·나노기술(Nanotechnology) 분야의 집중육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발전전략은 첨단기술 관련업체 창업을 위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창업자금의 용이한 확보 및 지원, 정보기반시설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市는 이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키로 하고, 우선 인터넷을 통해 ‘신경제발전전략’ 보고서를 공개하는 한편, 부동산, 고용여건, 투자자원, R&D, 첨단기술, 교육기관, 관련 정부부처 등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www.chicagotechtoday.com/index.shtml)

⑧ PC 없는 영세민에게 인터넷상으로 「가상컴퓨터」 제공 (휴스턴)

미국 휴스턴市는 개인용 컴퓨터를 보유할 여유가 없는 주민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데스크탑 활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최근 제공하기 시작했다. ‘SimHouston’이라고 불리는 이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e-mail, 워드프로세서, 파일 및 일정관리 프로그램 등과 문서저장을 위한 25 메가바이트를 인터넷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가상개인컴퓨터(Virtual Computer)」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市는 우선적으로 휴스턴 내의 도서관에 ‘SimHouston’을 제공했으며, 앞으로 미국 내 모든 도시의 도서관 등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市는 ‘SimHouston’의 새로운 버전에 전자게시판과 전자메신저 프로그램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www.ci.houston.tx.us/citygovt/mayor/press/082001.htm)

☞ 밤 늦게까지 운영하는 ‘인증보육원’ 설치 확대 (동경)

東京都는 금년 중 전철역 부근에 10곳의 ‘인증보육원’을 설치키로 하고, 지난 7월 첫 심사회를 열어 3곳의 설치를 인증(認證)했다. ‘인증보육원’은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의 자녀를 맡게 되며, 운영시간은 대개 오전 7시~오후 7시 30분까지이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보육원도 있다. 후생노동성이 정한 정원 및 시설면적 등에 관한 설치기준보다 대폭 완화된 기준으로 운영되는 ‘인증보육원’은 영세민 자녀의 보육과 1일 13시간 이상 운영이 의무화된다. 이 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都와 해당 區市町村이 운영비용을 1/4씩 보조하게 된다.

일본 전체적으로 ‘인가보육원’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여전히 보육원 대기아동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東京都의 대기아동 수는 현재 약 8,000명에 달하고 있다. 都는 복지개혁의 일환으로, ‘인가보육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일정수준으로 정비된 양질의 ‘인증보육원’을 확충함으로써 보육원 대기아동 수 감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日本經濟新聞, 7. 25)

☞ 양로원을 ‘公設民營’ 방식으로 도심부에 설치 (동경)

東京都는 고령자서비스 확충을 위해 都가 건립하고 운영은 민간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양로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都는 그 동안 도심부에서의 양로원 건립이 건설비 부담이 커 민간이 꺼림에 따라 都가 시설비를 부담하고,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해 운영을 효율화하는 이른바 ‘공설민영(公設民營)’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오는 11월 공설민영(公設民營) 방식으로 첫 개원(開院)하는 코우토우(江東)구의 양로원은 123명 수용규모로, 사회복지법인인 ‘장수촌’이 운영을 맡게 된다. 都는 양로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가족이 방문하기 쉬운 도심부에 공설민영(公設民營) 방식으로 양로원을 설치하는 것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日本經濟新聞, 8. 30)

